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선근

내일과 모레 양일간, 본당에서
영아부에서 소망부까지 모든 교사 참여
오후 6시부터 식사, 7시부터 시작

한편, 준비위원회는 참여하는 전 교사들을 위하여 6시부터 만찬회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교사들을 위해서는 간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련회의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대사관 주최
성경그림그리기대회에서

참가상 : 정세진, 오라과, 조현아, 김영은, 이송이, 김유림,
안효진, 김우진, 원나영, 이예빈, 김 환, 이은지,
김민준, 공진규, 박다솔, 이준성, 김윤영, 유민선,
천예지, 이홍재, 이은혜, 이아영

11월 22일(월)			11월 23일(화)		
18:00~19:00	저녁식사		18:00~19:00	저녁식사	
19:00~19:20	환상		19:00~19:20	환상	
	인도 / 천황준 목사			인도 / 조필승 목사	
	특송 / 지도교역자 전원			특송 / 부장,목사 전원	
19:20~20:20	탈 속		19:20~20:20	특 강	
	사하 / 장광호 목사			사하 / 정갑선 목사	
	기도: 최하연 강로			기도: 이병학 강로	
	말씀: 김성관 목사			말씀: 박병욱 목사	
	기도 회			기도 회	
20:20~20:50	인도 / 조필승 목사		20:20~20:50	인도 / 장광호 목사	
21:00~21:00	휴 식		20:50~21:00	휴 식	
21:00~22:00	그림상 주재특강		21:00~22:00	그림상 주재특강	
강의역목	강 사	대 상	강의역목	강 사	대 상
유이신학대학	장병희	영, 유이, 유취부	유이신학 교육대학	김종석	영, 유이, 유취부
기독교총회교과	전병홍	유, 조, 신대부	초·중·고교 일반신학대학	한승호	유, 조, 신대부
기독교총회교과					
10대 아녀의 정동무	열현빈	중등1,2,3부	10대 QT와 사	권순현	중등1,2,3부
행동한 청소년 사역	조종훈	고대, 청년부	하나님의 은사를	이승학	고대, 청년부
기독교대학원					
저장교과와 성경공부	이종득	할2, 신간자, 특송	가장좋은 선물	장병헌	할2, 신간자, 특송
		할1,2,3,소양부	사하: 고과	할1, 2,3,소양부	
사역과 절친	정병희	학사, 사학, 제4대부	소명으로 가르치는	정갑선	학사, 사학, 제4대부
		영이교과, 사기목부			영이교과, 사기목부

가칠봉 십자탑 점등식

한편, 군전도회는 군에 있는 충현의 젊은이들 및 본 교회와 결연되어 양육하고 있는 군인신자 양육대상자 등 총 280여명에게 신앙서적을 선물로 보낼 계획이다.

교구위원회 수련회
11월 25일

교구위원회는 25일(목) 하루 동안, 교구장 및 교구담당 교역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교구 사역 전반에 관해 토의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친교하는 수련회를 가졌 예정이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
이웃사랑 실천하는 각 부서들

충현의 성도들은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부터 주신 영원한 안식의 보좌와 날마다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

감사절 국제음식축제

오늘 낮 12시부터 제2교육관 1층에서

영양교육부와 외신부, 대학부가 협력하여 준비한 추수감사절 국제음식문화교류에 오는 12일부터 제2교과실에서 시작된다. 물결, 방갈라데시 등 총 12개국의 음식을 시식하면서 외신부 소속 외국인 근로자들이 준비한 각 나라별 특별순서를 관람하게 될 오는 축제에는 무려 60배부른 초창강을 가진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영양교육부나 외신부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주최측은 오늘을 행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타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무엇보다도 선교적인 관심과 열의를 품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농어촌 전도

1교구는 11월 25일 충주 가금교회를 중심으로 축조전도와 이음형전도를 통한 지역 전도사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구교회 40여명과 15명의 이음형전도회원이 연합하여 실시하는 금번 사역을 통해 이들은 총 440여가구에 복음을 전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지역이 불교와 사며니즘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면에서, 전도대원들은 교회밖에 신실한 종교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충현 핸드벨콰이어

우리 교회 핸드벨콰이어는 11월 23일 핸드벨협회에서 주관하는 제11회 정기연주회(연세대 백주년기념관, 오후 7시)에 참가한다.

하반기 정기감사

하반기 정기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부서의 회계는 10월말 기준으로 감사 자료를 준비하여 11월중에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간 : 1999년 1-10월
2. 대상기관 : 각 위원회 산하 전부서.
(각 남녀전도회 감사는 1월에 실시한 예정)
3. 제출서류 : 시산표(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원간 전체 시산
표),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 등 증빙철, 실제 현금 또
는 예금통장(인감 포함)
4. 감사실시기간 : 11월 첫주일 -11월 마지막주일



김창임 목사

감사가 없는 생활은

(고린도전서 10:1-13)

“... 저의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1.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는 동안에 처음에는 대접도 받고 영광스러웠는데 100년 20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억울함도 당하고 어찌할 바 없는 절망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이 땅 나라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단말받은 날이 온다. 그러나 해방의 즐거움과 함께 가나안 복지를 영원히 너희 자손들의 기쁨으로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때가 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께 애굽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의 집 문틀과 좌우편 문설주에 발라라 하고 그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면하게 하고 가나안 복지로 가는 길을 열어 주겠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여 양의 피를 문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신비례를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머리를 감고 그 새벽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운 심판의 동풍이 불기 시작해서 문틀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만나들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이러하여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통곡하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이 넘쳐서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 가나안 복지로 출발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사람의 햇빛을 가리워 줍니다. 저녁에는 불기둥이 따라붙어 하여 주면서 가는 길을 인도합니다. 이러하다 한 것이 땅에 내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양적인 만나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희망과 기쁨에 넘쳐서 가나안 복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똑바로 가면 40일 지나서 50일 동안이면 너무 허갈 수 있는 가나안 복지인데 가나안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순종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20세 이상인 청년들과 장년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20세 미만이었다서 사모를 거느리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으니”(5절).

영광스럽게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하여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가고 중도에서 버림받은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신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모세의 직직이나 모세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길을 열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났지 우리가”라고 애굽사람보다는 천 배만 배 나을 거야”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믿지 못하니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자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감사가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주를 한 것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을 입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혼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이 높고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입으로는 찬송하고 지를 따라 마음으로는 찬송을 못 하고, 마음으로는 찬송을 불렀는데는 몰라도 성령님의 감동 없이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충언하고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할 때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함을 숨길 때까지 찬송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순종,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겼던 것 같이 즐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함이니”(6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11절).

구약은 그러하지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자와 우리들은 구약에서 된 일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거울로 삼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까지 지난 주일 저와 여러분은 성찬예식에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마셨고 그 피의 살을 기념하는 누룩 없는 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성찬예식을 행한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가나안 복지의 실제

인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복지로 가는 동안에 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의 중에 어떤 이들이와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고 함과 같이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명이 죽었나니 저에게 멸망과 같이 간음하지 말라 저의 중에 어떤 이들이 우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저의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7-10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활 가운데 받은 바 은혜를 다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면 가나안 복지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면서 원망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장래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절대적 사랑을 분명히 믿고 절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절대자의 음성에는 순종받습니다.

3.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교만한 자는 복종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감사 없이 원망만 합니다. 복종하는 자는 감사로 살고 불순종하는 자는 교만으로 살기 때문에 거역합니다. 총현의 성도들은 땅 위에서 살 살가나 못 살가나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수집에서 고생하는 사람처럼 살았는데는 몰라도 천국 가면 왕복 보살 모든 집이 우리들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을 모르면서 원망이 없는 생활을 통해서 영원히 살 사람은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으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혼식 날짜를 택일 한다거나 돈이나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하나님 대신 섬기면서 돈을 탐하는 것은 일만 이의 뿌리가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백성이 돈 우상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뉴스를 들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돈 문제 때문에 재판받는다는 소식을입니다. 총현의 성도들은 돈 우상 숭배한 자들 다

회개하고 굶어 버리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없이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12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믿게 된 것이지만 우리가 특별해서 잘 믿는 자는 아니므로 잘 믿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여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감사한 마음이 없이 되고 원망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신 우상 섬기고, 교만한 자는 음란죄에 빠지고, 교만한 자는 덕을 뽐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교만한 가정은 부부간에 안락이 생깁니다. 교만한 교회는 피자에 싸움이 생깁니다. 교만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화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의 절대성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절대성을 믿고 하나님의 재산의 절대성을 믿었다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충언권자의 성도들이여, 하나님 믿고 예수님만 바라갑시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감사 생활을 제대로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이제부터 감사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들의 결심만 가지고는 제대로 감사하는 생활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감사 생활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기도해달라 합니다. 결심하는 것은 내 가 하지만 감당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은혜 충만히 받아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결론

총현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부터 원망하지 말고 관순하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복음에 절대로 순종하여 영육간에 은총을 받아 이 땅에서 천국 생활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받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ㄸ



김성목 목사

거기서 축복 받음

(창세기 32:29)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질문에 대하여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축복을 주시기 전까지 완도때가 부러지도록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 했던 야곱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 백성의 삶 가운데서 전해지고 또 전해진 야주의 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야곱은 강한 금금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는 대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사도행전 13장에서 발견합니다. 바울하심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행 1:7)라고 대답하시면서 그들에게 영광스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8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필요한 축복의 능력에 마음을 집중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복됩니다. 우리들은 야곱이나 제자들처럼 우리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여쭙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전한 은총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더 중한 축복

그 축복의 장소에서 야곱이 받은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일차적인 간구는 형 에서의 분노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창 32:11). 야곱은 실로 자신의 목숨과 자기 가족의 목숨을 잃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에 따라 형 에서가 사백인의 장정들을 이끌고 자기에게 나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두려움은 극에 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소유하고 있는 물리적인 세력은 극단적인 두려움을 일으킬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그런 위험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모면했을 뿐 아니라 과거에 형에게 저지른 장자권 찬탈의 죄물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깨어졌던 관계가 치료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야곱이 새 이름, 곧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한낱 수종들은 자였던 그가 이제는 왕자가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이후로는 내내 새 기쁨부

음을 받은 후사로서 모든 악으로부터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창 48:16).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축복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그곳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무엇보다도 그곳은 큰 시련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고백이 이루어진 장소였습니다(32:6-7). 에서가 소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식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자기에게 나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는 죽어가는 자처럼 바뀌었습니다. 이 때, 그는 하나님의 소매를 붙고 온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길 원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입니다. 야곱은 천사와 더불어 싸워 이겼습니다. 그는 울부짖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했습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든 저주들을 넘어서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결국 야곱은 베엘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축복의 장소는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라”(창 22:18)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한 씨가 임하여 천하 만민을 축복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된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신 갈보리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종으로 인하여 천하 만국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의 경리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시 32:1-2). 아멘! 죄를 고백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말끔히 씻으십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자리

한번의 때, 곧 겸비하여 간구하는 때에, 우리는 축복의 장소를 발견합니다.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용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약 1:12). 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의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시 1:1-2). 주님과 교통의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장소입니다. “지호와 함께 움직 갑수일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어 저에게로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되니 예수는 저에게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눅 24:30-31).

오직 거기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축복의 장소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기꺼이 포기함으로써 축복의 장소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모든 소유로 모시려는 것이 바로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를 섬기는 것이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 축복을 뜻이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 축복의 장소를 빌리라고 남겨두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씨를 뿌리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을 위해 오직 그런 바리새주의 오직 그분만이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12). 아멘.

네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

야곱은 울부짖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했습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든 저주들을 넘어서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결국 야곱은 베엘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친족 사랑 회복하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애국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에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벧전 1:22)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후 5:8).

이 말씀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도전적이다. 물론, 이 말씀에서 말하는 바 ‘친족’, ‘가족’은 일차적으로 ‘과부’가 된 어려운 분들을 지칭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과부의 어려움에 비견될 만한 온갖 어려움을 가진 가족과 친족들도 포괄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이들이 내 가족과 친족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

르침이다.

최근 우리 교회 장년부 지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간순회 설문조사 중, “귀하의 일가친척과의 관계는 원만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아주 좋다’가 30%, ‘갈등관계에 있다’가 20%, 그리고 ‘그저 그렇다’가 50%의 비율로 나왔다. 한

번쯤 생각해볼 말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친족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족들을 물질로 도우며 성기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초대함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하겠다.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김 병 태 (목사, 7교구 지도)

“명절이 다가올까봐 겁이 나요.” “제사 때문에 더 이상 건널 수 없어요.” “우리 남편은 술을 먹기만 하면 인건이 아니에요.” “자식이 원수 같아요.” “시아머니 때문에 더 이상 건디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내가 많이 해오던 말들이 아닌가. 가족이란 것이 너무 소중해서 아끼고 싶은 욕망이 속에서 우리는 뜨거운 사랑, 안정감과 소속감을 깊이 느끼게 된다. 그러나 가족 관계를 원만하지 못하면, 사회 생활조차도 흔들리게 된다. 오늘날 많은 가정 사역자들은 “집(house)은 있으나, 가정(family)은 없다”고 말한다. 당신의 가정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가족문제는 다양하다. 이처럼 불신자들이 당하는 갈등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세계관과 생활방식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불신자 가족과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차이점은 그 어느 차이점보다 골이 깊다. 불신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갈등, 불신 시집구들과 부딪히는 문제들, 제사문제, 주일에 진행되는 집안 경조사 참석 문제, 신앙생활에 환멸감을 느끼고 있는 자들이 등,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문제를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고 있다. 흔들리는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서 두려워 가고 있는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풍요가 될 생각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종교문제를 문명이나 싸움의 요소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편적 가족들이 입방야를 쫓게 만든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정신으로 쉽게 달라붙어 수 있는 일들을 믿지 않는 자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한 수 없어야 하고”한다며, 어쩌면 그 사람을 영원히 가족들의 단절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때로는 당신의 포용력 있는 태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평소에 성기고, 이권이 결부될 때 포기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집안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한 약점을 만회하기 위해 평소 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간 갈등의 원인이 이권과 결부된 경우가 많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에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도 별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원가 다 드려야”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해 준다. 내가 행할 것을 다 행하면서 집안 식구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나는 남보다 죽는다”는 고백을 영적인 생활에는 적용을 잘한다. 그러나 가족관계 속이나 경제생활, 직장생활에서는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를 철저히 포기하고 죽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마음에 새기고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만 믿었던 큰 사랑, 십자가를 통해 얻은 용서를 생각해 보면, 파본한 사랑과 은혜가 아니냐? 결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러한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던 이예 주이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사랑만이 우리를 거칠게 대하는 식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정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앞에서 실패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으로 나를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그리고 복음의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가정을 재건하고, 그리스도께로 돌려놓기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행복한 가정

조 중 광 (집사, 장년1부 교무)

우리 가정이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아내를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신앙을 추구하던 중에 저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지금 7교구에서 지회 4남매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중요한 것이 가족간에 화목, 형제간의 우애와 화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가정을 만드실 때 사람들에게 평화의 마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가족과 형제간에 우애와 화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애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처럼 중요한 것이 없지만 형제간, 시집 식구간에 우애와 화목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며 기뻐하는 가족들은 서로 우애하며 화목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연인들은 먼저 하나님이 배우자 사이에 계시실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지혜와 인내하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 영아부에서부터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양육하여 결혼을 한 후에도 시집 식구들과 형제간의 관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가장 행복한 생활은 심령이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심령이 기쁘면 형제간의 화목도, 시집 식구들간의 화목도 생기지 않습니다. 시소한 불화라도 생긴다면 하나님께 평화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불화의 요인을 모두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나보다 시집 식구와 형제를 낮게 여기고 위해 주고 도와 주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다면 행복한 가정, 예수난만 모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 감사가 있는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따뜻한 사랑과 훈훈한 정을 나누면서 예수난만 모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아들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들이 97년에 대학에 입학하였다. 처음 전공을 선택할 때 아들과 남편, 내가 원하는 학과가 달랐으나 아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편이 원하는 학과에 합격하여 등록을 하고 얼마간 학교에 다녔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아들이 적응을 못해서 공부도 잘 안하고 성적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군대에 간다는 핑계로 휴학을 하였다. 그후 아들은 일명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자기 방에서 잘 나오지 않고 아침에도 남편이 출근해야 나오고 아버지가 있는 방도 한 상에서 같이 먹으려 하지 않는 등 아버지와 마주치기 싫어하고 했다. 남편은 남편대로 이런 아들을 보면서 화만 냈다.

결혼 18년 된 어느 여성들은 얼마 전 퇴직한 남편과의 갈등으로 고민에 빠졌다. 남편은 퇴직한 날부터 두문불출을 집안에만 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아침식사는 물론 형제와 이웃이 다반사하면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날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남편 식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는데 지금은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차려 주어야 하고 생활비도 갖다 주지 않으면서 반찬 부엌을 싹쓸이 한다. 게다가 밖에 물건을 잊어 외출을 하려고 하면 어디 가느냐, 빨리 돌아오라고 하고 조금만 늦게 들어가면 화가 나 있어 남편에 대해 마음 깊은 상처가 점점 심해져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다.

지체들 소식 / 나를 바꾼 한마디

지체들 소식

영아부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엄마 품에서 영아부를 찾아오던 아기들이 이제 키가 자라고 지체가 자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 줄임을 앞두고 지난 주일 본당들에서 생생함과 영마와 아기가 함께 포즈를 취해 모두 예쁜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다. 한 가정에 아기를 선물로 주시고 영아부에 다니게 하셔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기가들 강성하여서 대학부,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간절히 기원합니다.

(송혜경 통신선)

유아부

“잘 키워 주신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유아부는 11월 14일 본당 앞에서 졸업사진을 찍었어요. 햇빛 때문에 얼굴을 쨍그려요. 심통부러도 얼마나 예쁘지 않아요. 유아부를 물고 어린이기로 유아부에 온 지 벌써 2년이 지나 이렇게 멋지게 크나니, 정말 비운 뒤 새책처럼 쑥쑥 잘도 자라요. 우리 어린이들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 주일이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새우하고 졸린 눈을 비비며 교회로 달려왔어요. 그동안 수고하신 어머니들, 너무 감사해요. 또 잘 키워 주신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윤순 통신선)

유년부

“오늘은 가족과 함께 찬양을”

오늘 주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유년부에서는 2부 순서로 ‘가족과 함께 찬양을’이라는 특별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온 가족이 연습했던 숨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박효정 통신선)

1교구

예수님 통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문
- 루디아전도회의 전도자의 기적

루디아전도회는 11월 4일 만나움에서 대신자 초청 전도집회를 가졌다. 그동안 기도하며 인내한 13명이 참석했다. 그 중 한 분은 교직에 계셨던 60대분이셨는데, 이제까지 남에게 주지 않고 성실히 살아오셨기에 훗날 천국과 지옥 중에서 천국을 갈 수 있으리라는 막대한 선과를 가지게 되었다. 본사이다. 그러나 영적 자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대신자 초청 집회에 참석했다. 남자 본사이다. 본회까지 한결 돋보였고, 그 다음 주일부터 새가족부 교육에 출석하시면서 교구 모임때도 출석하시겠다고 하셨다. 인간은 누

구나 마지막날을 맞이해야만 하고 육신은 홀로 돌아가 지니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해야 함을 갖는 사람에게만 조금씩 심령에 초혼다. “한 번 죽을 것이기에 경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다” (임동복 통신선)

11교구

교구 영성훈련 및 대신자 초청전지



지난 1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충현기도원에서 교구 영성훈련 및 대신자 초청 전지가 있었다.

이날 아침 교회 앞 주차장에 모인 교구식구 일백여명은 버스 3대에 분승, 11시경 기도원에 도착하여 교구 담당 박경환 목사의 인도하에 예배를 드렸다. 박 목사는 주가복 10장 말씀을 통해 “강도당한 것같이 우리 인생은 강도 만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대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보살펴야 할 것”을 말씀으로 증거하셨다.

교구식구들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이 모임에 초청한 대신자들과 함께 이경현 권사의 지도하에 줄다리기, 장애물 경기, 장기자랑 등 레크리에이션 시간과 함께 주경한 선봉도 나누어 주를 교구식구들의 친목 도모와 함께 대신자들이 교인들에 대한 따뜻한 정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교회에 다니는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모임을 위해 박경환 목사를 비롯하여 최희재 전도사, 정문석 장로, 최대원 장로, 임기재 장로, 김경철 집사, 석영식 집사, 김복련 권사, 이경현 권사, 전순준 집사, 태명자 집사 등 남녀 전도회 일원들이 여러 차례 특별 기도회를 갖고 준비했다. 특히 이번 모임을 위해 교구식구들의 영성훈련 및 대신자 초청 준비위원회는 남녀 전도회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도 모든 일정을 각 분야별로 나누어 준비하였는데 모두 30명의 대신자를 초청하였었다 이날의 모임에는 11명만 참석하였다. 이날의 대신자 초청전지에 참석하지 못한 19명의 후속조치는 교구식구들의 계속된 기도와 함께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음 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 건통신선)

14교구

이웃초청전지

지난주 우리 교구에서는 이웃초청전지를 가졌다. 이 전지를 열기에 앞서서 영성훈련으로 먼저 우리들이 성

나를 바꾼 한마디

“다음에 사랑하리라는 말은 사랑이 없는 말이야”

임 미 순 (14교구)

비가 오더니 날씨가 투명하고 짙게 해졌다. 가을다운 날씨를 즐기며 지나가는데 지지도 차가 바닥에 얼도록 있는 사람을 보니 금방 마음이 시려진다. 주머니를 뒤지며 천주를 생각했다.

대학시절, 그 친구나 나나 열심히 살았지만 항상 힘이 들었다. 등록금을 걱정해야 했고 예쁜 옷을 보며 속이 상했다. 그런데 친구는 저처럼 천사를 타거나, 거리에서나 불쌍한 사람만 보면 꼭 지갑을 열었다. 번번이 착한 척(?)하는 친구에게 어느 날 화를 내고 말았다.

“이제 내가 너도 돌봐 줄게!” 친구는 슬픈 눈으로 쳐다보며 “우리는 우리 하고 있고 있어. 사랑보다 훨씬 적은 사랑을 하고 있어. 다음에 사랑하리라는 말은 사랑이 없는 말이야. 사랑은 언제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활동이야.”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했나? 아마도 다음에 여자가 생기면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 줄 것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비하면 부자가 되었는데도 지금도 나는 나만, 내 아이만, 내 남편만 생각한다.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내 것을 나누는, 천주를 생각하며...

인생가는 나도 그 친구처럼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으며.

령충만을 입은 후, 새가족들을 초청하였다. 이 간치는 ‘작은 음악회’로 아름답게 열렸다. 각 찬양의 솔로이스트들과 이수철 집사님의 바이올린 연주, 14교구의 살롬찬양대의 찬양 등 귀한 연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참찬한 모두에게 은혜롭고 뜻깊은 음악회였다. 비가 오는 것은 날씨였으나 노방전도나 병원전도를 통해 초청된 분을 비롯하여 이웃집 아주머니, 친구, 직장상사, 형제, 장모님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초청을 받아 여러분들이 오셨다. 이분들 중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교인 앞에서 예수 믿었다는 약속을 하셨다. 정말 그들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권에 등록되었음을 간절히 기도한다. (이애나 통신선)

사랑과 기도와 물질과 헌신을 끊임없이 쏟아부어야만 하는 사역임을 감안해 볼 때 우리는 그저 주님의 명령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뿐입니다. 교도에서 수감되어 비록 육신적으로 수감된 몸이지만 그들이 사역원들의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이전에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후 그들이 사역원들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어,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왔는데 성경이 그들을 항상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시켜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사님과 사역원들의 안타까운 기도하 속히 응답받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교정전도회 회원뿐만 아니라 종헌의 가족들도 비록 본인의 원인과 여러 잔정 직접 기도송을 방언하여 전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뒤에서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구원 사역을 동참하는 것일 것입니다. 계소자들에게 성경책과 찬송가를 보급하는 데 조그마한 정성이라도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정전도회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을 이제 겨우 알기 시작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항상 품에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귀의 유혹에서 일시적으로 생생 죄를 지어 간혀 있는 그들이 이제 피조계로 새 생명을 되찾아 주기를 위하여 주를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그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정전도회에서 보내온 긴급 요청

“집사님, 성경과 찬송가 좀 구해 주세요!”

김 철 환(사, 교정전도회)

매 주일 아침마다 하듯이 지난 주일에도 교회에 도착하자 먼저 교정전도회에 들러 지난 주간에 사역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지도 목사님에게 보고할 주간전도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박영덕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전도사님, 지난 주간에는 어디 어디 다녀오셨지요? 성경 말씀은 어떤 구절을 가르치셨어요? 전도집회에는 몇 명이 다녀오셨어요?” 전도사님은 대담 대신 “김 집사님, 천천히라도 두의막자 집회와 강단집회때에 참석자들이 불 성경책과 찬송가가 없어서 큰일이네요. 집사님, 당장 성경책과 찬송가를 좀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찬송가는 3-4,000원 정도, 성경책은 5,5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어요. 집사님, 좋은 방법 없을까요? 우선 600권이던 금한 대로 되겠는 아니요? 하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대하면서 나는 “어떻게 알아볼까요?”라고 모음을 대하고 나서 “금한에는 교정전도회 예산으로 곤란하고요...” 피해 나왔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답답함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성경과 찬송가를 교도 소내에 보급해 주어야 한다고 격려하는 모습이 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박 전도사님만의 기도제목이 아닙니다. 각 교도소도 직접 찾아가 사역하시는 권사님들도 한결 같이 기도제목 중의 하나가 당장 안에 있는 그들에게 성경책과 찬송가를 충분히 공급하게 해주십시오 하십니다.

이런 때는 권사님들이 사역비를 쪼개어서 개별적으로 한두어 권 보내주거나 또는 남포교회 기도의 후원을 통하여 성경과 찬송가를 보내기도 하지만 계속해 늘어나는 새로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성경과 찬송가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교도소 전도는 교도소라는 대상의 특성상 말씀과



